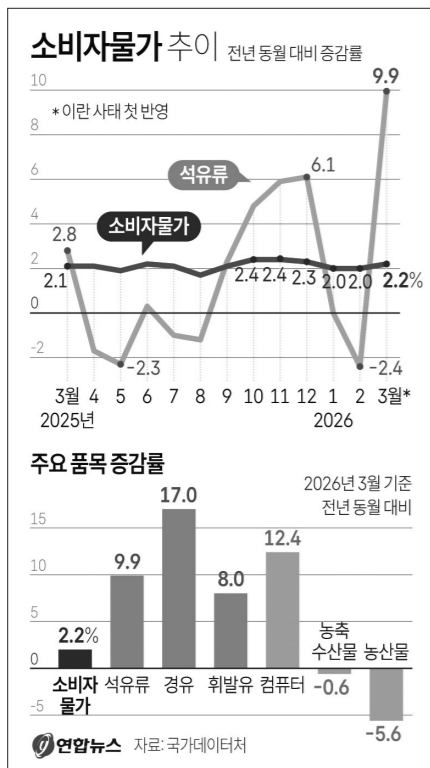


중동전쟁 여파에 광주·전남 물가상승률 다시 2%대



기름값 급등 본격 반영 서비스료 등 올라 채소·과일 등 농산물 하락에도 상승 압력

지난달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올라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교환율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2026년 3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지난 1월(1.8%)과 2월(1.6%) 1%대 안 정세를 보였지만 다시 2%대로 돌아왔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식품과 식품 이외 품목이 각각 1.2%, 2.8% 올랐다.

다행히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8.5%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6.3% 상승했지만 신선채소(-16.9%)와 신선과실(-10.7%) 가격이 크게 내리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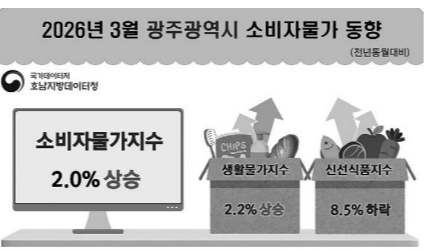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했다. 굴(-32.3%), 배(-26.9%), 딸기(-17.2%) 등의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다만 돼지고기(11.9%), 쌀(15.2%), 고등어(17.4%)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경유(16.2%), 휘발유(7.8%) 등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상수도료(7.7%)와 도시가스(0.5%)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올랐다. 전기료는 0.4% 하락했다.

서비스물가는 2.4%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4.9%)와 과공등주택관리비(5.2%)가 올랐지만, 유치원 납입금(-96.5%)과 보육시설이용료(-93.3%)가 급감하면서 교육·보육비 부담은 크게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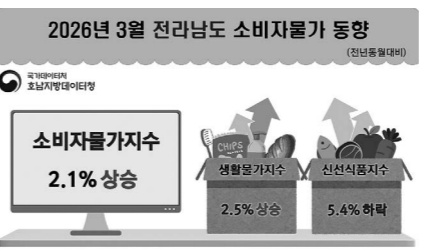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상수도료(7.7%)와 도시가스(0.5%)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올랐다. 전기료는 0.4% 하락했다.

서비스물가는 2.4%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4.9%)와 과공등주택관리비(5.2%)가 올랐지만, 유치원 납입금(-96.5%)과 보육시설이용료(-93.3%)가 급감하면서 교육·보육비 부담은 크게 줄었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지난 2월 이후 1%대로 내려온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갔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은 1.7%, 식품 이외 품목은 3.0% 각각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5.4%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2.1% 상승했지만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이 각각 9.5%, 7.4%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 돼지고기(12.3%)와 국산쇠고기(8.4%), 쌀(14.4%) 가격이 올랐지만 굴(-27.4%), 배(-33.0%), 배추

(-19.7%)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 경유(16.5%), 휘발유(7.1%), 등유(11.0%) 등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기·가스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 전기료(-0.4%)가 내린 영향이다. 서비스물가는 2.3%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4.9%)가 올랐지만 유치원납입금(-99.6%)과 학교보충교육비(-35.1%)는 크게 줄었다.

한편 전국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크게 상승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승세를 일부 억제했다. 농산물과 설량·밀가루 가격 하락도 오름세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체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은행은 2일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를 기념해 KIA팬 가족이 참여하는 가업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대하 광주은행 부행장과 KIA팬 가족(조오, 지너, 부),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KIA타이거즈 V13 응원합니다"

최고 금리 연 3.65%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2일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를 기념해 KIA팬 가족이 참여하는 가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지역 대표 프로야구단인 KIA타이거즈의 선전을 기원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연계 상품으로, 매년 시즌마다 선보이고 있는 광주은행의 대표적인 스포츠 상품이다.

올해 가입행사에는 할머니와 아버지, 자녀로 구성된 3대 팬 가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손주는 유소년 야구

단에서 활동하는 등 세대를 잇는 야구 사랑이 각별하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KIA타이거즈는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단순한 스포츠 구단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의 자부심이자 응원의 상징"이라며 "이번 상품이 지역민과 함께 팀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예금은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까지 1인 1개좌 가입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최고 연 0.25%p와 이벤트 금리 최고 연 0.30%p를 더해 최고 연 3.25% (기본 연 2.7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프로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p △정규시즌 우승 시 연 0.10%p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0%p이며, 추가 이벤트 금리는 △팀 승수에 따라 최고 연 0.20%p △최장 연속 기록에 따라 최고 연 0.30%p △챔피언스필드 방문 인증(최대 2회) 시 최고 연 0.20%p(인증기간 3월 19일~10월 31일) △전남광주특별시 사랑통장 보유 시 연 0.30%p를 제공한다.

예·적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하며, 판매해도 소진 시 중단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은 물론 스마트폰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이 기자 aura@gwangnam.co.kr

우대금리는 △프로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p △정규시즌 우승 시 연 0.10%p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0%p이며, 추가 이벤트 금리는 △팀 승수에 따라 최고 연 0.20%p △최장 연속 기록에 따라 최고 연 0.30%p △챔피언스필드 방문 인증(최대 2회) 시 최고 연 0.20%p(인증기간 3월 19일~10월 31일) △전남광주특별시 사랑통장 보유 시 연 0.30%p를 제공한다.

예·적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하며, 판매해도 소진 시 중단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은 물론 스마트폰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이 기자 aura@gwangnam.co.kr

코스피, 트럼프 강경 발언에 4% 급락

외국인 11일 연속 매도 우위·2년 6개월만 최장 순매도

2일 상승장으로 출발한 코스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하락 전환해 5200대까지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2.99p(1.33%) 오른 5551.69로 출발해 244.65p(4.47%) 내린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종전 기대감에 8% 급등한 지수는 5400선까지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반락했다.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나란히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증시는 급락세로 돌아섰다. 한때 5170.27까지 밀리며 프로그램매도호가 밀려들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64억원, 1조452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개인은 1조2065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1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18일~10월 16일 이후 약 2년 6개월만에 가장 긴 순매도 기록이다.

코스닥지수도 59.84p(5.36%) 급락한 1066.34에 마감했다. 오후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장보다 18.4원(0.3%) 상승한 1519.7원을 나타냈다. 트럼프 연설에 장중 오름폭을 확대, 한때 1524.1원까지 치솟았다.

업체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멈춰선 기중기...전라권 건설업 '혹독한 겨울'

5년간 수주 -9.7%·착공면적 -18.1% 건설생태계 흔들

광주시와 전남도를 포함한 전라권 건설경기 전망이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에 따르면 '3월 건설시장과 이슈' 분석 결과, 전라권의 건설수주 연평균 성장률과 건축착공 면적 연평균 성장률 모두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권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가 집계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역별 건설수주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전라권은 -9.7%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2.7%)은 물론 같은 지방권인 충청권(0.3%), 강원권(3.9%), 경상권(-2.4%)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수도권(6.9%)과의 격차는 16.6%포인트에 달해 지역 간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착공 면적에서도 전라권의 상황은 최악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18.1%로 전국평균(-11.0%), 수도권(-8.2%), 경상권(-14.2%)을 크게 밑돌았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주에 이어 실제 일감까지 잃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라권의 이 같은 추락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서 우려가 크다. 보고서는 "건설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지방 건설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국 건설경기 회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방 건설경기 부진과 '물량 절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건설수주가 줄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일감도 함께 쪼그라든다. 지역 내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광주·전

남의 경우 이러한 연쇄 타격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 시공의 실질적 주체로, 수주 감소는 고용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BSI)는 전국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가 꾸준히 호소하는 예로, 사항은 공사 수주 감소, 자재비·인건비 상승, 수반 내국인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이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체감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실사상장으로 올해 2월 발표한 이란 전쟁의 파급효과가 전라권을 포함한 지방 건설업계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 이번 총선이 건설업에 공생파 상승, 수요 위축, 자금조달 경색이라는 세 가지 경로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성이 취약한 지방 프로젝트일수록 공생파 상승으로 인한 착공률에 미치는 타격이 수도권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 부동산 PF 등 자금조달 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어, 이시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민간 건설 프로젝트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이처럼 심각한 지역 건설경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5국 3특'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연계해 산업·교통·주거 부문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행용 기자 nab@gjdream.com

광주시, 전국 첫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시동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첫 회의...실증 통합모델 구체화 데이터·컴퓨팅 연계 플랫폼 구축...시민 체감 서비스 확대

광주시가 정부와 함께 전국 최초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시는 2일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관계기관과 '광주 AI 실증도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도시 전역의 상시 실증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의 단일 서비스 중심 실증을 넘어, 도시 전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상시적으로 실증·검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통합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데이터·컴퓨팅·실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전역 상시 실증 플랫폼' 구축 방향을 비롯해, AI 데이터뱅크 기반 도시 데이터의 수집·가공·활용 체계, 국가 AI데이터센터 및 NPU 컴퓨팅

기반시설 활용 방안 등 핵심 설계 개념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 등 5대 생활밀착형 도시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효과와 실증·상용화 파급력이 큰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추진 중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연계해 규제 특화 전략을 마련하고, 통합적인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 NIPA 주관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모델 구체화'를 위한 기획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단위 상시 실증체계 구축과 실증거점 조성, AI 데이터·컴퓨팅 기반 실증 인프라 구축,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산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순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는 국가 AI데이터센터 등 이미 구축된 인공지능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시 전역 실증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전국 최초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